

보도시점:

2024. 4. 16.(화) 14:00

배포:

2024. 4. 16.(화) 08:30

“韓 윤리경영·ESG 위해 뭉쳤다” 국민권익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기업의 국제 반부패 규범·ESG 경영 강화를 위한 법조계·학계 의견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미국·영국, 세계은행 등의 반부패 제재 강화와 ESG 공시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응해, 효과적인 윤리경영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국내 기업이 강화된 국제 반부패 규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법·제도와 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웹진 발간,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ESG 기준원, 법학·경영학 교수 등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개발해온 공공기관·기업 지원을 위한 ‘윤리경영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과 올해의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 기업이 경영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사전 예방적 내부통제 시스템

-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업 활동과 관련한 반부패의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및 각계의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민간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지원 (044-200-7161)
		담당자	사무관	손정아 (044-200-716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